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서 내게 물어보셨던 질문이다.

과연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꿈, 소방공무원. 그중에서도 119 구급대원.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직업,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응급 처치를 하여 병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직업이 바로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이기에 나는 그 직업을 선택하였고, 최고의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응급구조학과에 입학 후 배움을 통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땀으며, 군대를 의무병으로 다녀와 병원 응급실에 취업하여 구급대원으로서 환자를 처치하는 술기를 배우고 익혔다. 그리하여 나는 대한민국 구급 대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처치해줄 수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이라는 술기를 통해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구급대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꿈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0건이 넘는 구급 출동에 나의 체력은 고갈되었고, 그 출동의 대다수는 단순주취자, 행려자 등의 비응급환자였으며 나는 의도치 않은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나를 대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만날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구급 대원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직업이 아니던가.

하루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119안전센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8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아들이 포도를 먹다가 쓰러졌다는 어머니의 신고 내용이었다. 심정지 상황임을 즉시 파악한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3분 만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서 있기에 나는 운전원에게 들것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하고, 제세동기와 응급 처치 가방을 들고 8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황급히 현장에 도착해보니,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으며 옆에는 먹다 남은 포도송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연결하였더니 그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나는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다 입안에 포도송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즉시 포도송이를 제거한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실시했다. 심장 리듬은 돌아왔고, 조금씩 자발적 호흡을 하기 시작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다. 그 후, 나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방문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도 궁금했기에 환자분 회복되었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흰색 돈 봉투 그리고 나에게 대한 원망이었다.

환자는 살아있고 의식도 되찾았으나 아파트가 바로 소방서 바로 옆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하지 않았냐며 원망을 쏟아놓았다. 또,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참는데 만약 잘못되었으면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보호자는 당신이 여기 찾아온 것이 목숨값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면서 돈 봉투 가지고 나가라고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아드님의 상태가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돈 봉투를 정중히 돌려드리고 현관문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순간 세상이 캄캄해졌고 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과연 나는 이러한 원망과 목숨값을 받으려고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택했나? 나는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을 살리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원망과 돈 봉투 뿐이라니,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나날을 보내던 중 나를 반성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후 장비를 점검했고 비응급환자 2명을 이송한 뒤 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새벽 2시. 구급 출동벨이 울렸다.

“구급 출동, 구급 출동, ○○동 ○○아파트 ○동 ○○○호. 남편이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함. 심정지 추정.”

재빨리 차량에 탑승한 뒤,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제세동기와 장비를 챙겨 현장을 살펴보니, 키가 180cm, 몸무게 100kg이 넘는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영영 울면서 남편 좀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실 한가운데로 환자를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환자가 거구이다 보니 아무리 세게 압박을 하여도 흉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심장에 적절한 압력을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7~8살 정도 되어 보이는 환자의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환자를 꼭 살려내자! 저 아이가 아빠와 함께할 수 있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빠 금방 일어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후, 젖 먹던 힘까지 쪼개내어 압박을 실시하였더니 심장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내 심장이 스스로 박동하였고 환자도 스스로 숨을 쉬게 되었다.

신속히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실 문을 나서는데 나의 몸과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열흘이 지났을 즈음. 평소와 다름없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 차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부부와 한 아이가 내렸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심정지를 겪었던 남편과 신고를 했던 아내,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아이였다.

남편은 그날 바로 의식을 회복하여 ‘자동 인공 심박 조율기’ 라는 심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넣는 수술을 했다고 한다. 회복속도가 빨라 열흘 만에 퇴원할 수 있었으며, 퇴원하자마자 집에도 가지 않고 소방서부터 찾아왔다고 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선생님이 이 세상에 살아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며,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부부의 눈에는 진실된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때, 거구의 아빠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초콜릿 한 개를 꺼내더니 “우리 아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가 줘서 제가 먹으려던 초콜릿인데 나눠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살린 건 아저씨가 아니야. 아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네 덕분에 아빠가 살아난 것이지. 그러니 이 초콜릿은 아저씨가 먹을 것이 아니라 아빠를 살린 네가 먹어야지.”라며 아이의 입에 초콜릿을 넣어주었더니 아이는 “진짜 제가 살렸어요? 내가 아빠를 살렸대!” 하면서 활짝 웃어주었다.

이 사건 후, 나는 내가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며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였다.

또한, 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며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응급 처치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구급대원이라는 사실을 한 아이의 미소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